국토교통부 / Incheon Airport	보도참고자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
	배포일시	2018. 1. 20.(토) 총 3매(본문3)	
담당부서 공항정책과	담 당 자	•과장 나웅진, 사무관 천홍식/허나윤, 주무관 권오준 •☎ (044) 201-4328, 4337, 4333	
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준비기획팀	담 당 자	•팀장 석준열 •☎ (032) 741-5133	
보 도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, 개장 2일차 점차 안정을 찾아

□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1.18일 개장 이후 2일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**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**입니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제2 여객터미널의 조속한 운영 안정화를 위해 **「운영 안정화 현장 대응반」을 가동 중**으로, 이용객 설문이나 현장 점검에서 확인되는 **일부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·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**하고 있습니다.

□ 개장 이후 2일 동안 총 484편(출발 242편, 도착 242편)의 항공기와 총 10만8천여 명(출발 5만3천여 명, 도착 5만5천여 명)의 여객이 제2 여객터미널을 이용하였습니다.

○ 일부 항공기에 항공기 연결, 승객 연결, 항로혼잡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였으나 결항은 없었고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. 첫 날은 지연율이 21%에 달했으나, 2일차에는 8.5%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.

○ 제2 여객터미널 역이 신설되어 연장운행되고 있는 공항철도, KTX, 공항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 중입니다.

○ 2일간 오도착 여객은 총 506명 발생하였으나 항공기 탑승에 문제가 없도록 안내 조치하였으며, **오도착으로 인해 항공기를 놓치는 여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**. 오도착 여객은 개장 첫날 264명, 둘째날 242명이 발생하는 등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.

○ 출발시간이 임박하여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여객들에게 발급되는 **"I'm Late" 카드는 2일간 25장 발급**되었으며, 여객들이 체크인 카운터 우선 수속, 보안검색 전용창구 등을 통해 빠르게 수속을 마침으로써 차질없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.

- 2일차에는 "I'm Late" 카드로도 정상적인 항공기 탑승이 어려운 경우가 12건 발생하였으나, 긴급수송차량을 동원하여 항공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.

○ 개장 첫 날 셔틀버스 혼잡 문제가 다소 있었으나, 오도착 여객이 감소하고 있고 제1 여객터미널로 출국 후 제2 여객터미널로 입국하는 여객이 일정 기간 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점진적으로 혼잡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○ 개장 2일차는 첫 날보다 10편(5%) 많은 247편의 항공편이 운항되었고, 2천8백명(5%) 많은 5만5천 여명이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, **항공기 출도착 지연, 오도착 여객이 크게 감소**하는 등 **전반적으로 운영상황이 빠르게 안정화**되고 있습니다.

□ 개장 첫 날, 환승편 지연도착 등으로 인하여 출발 항공기 여객 수하물이 누락되는 **이용자 불편이 발생**함에 따라, 2일 차 부터는 재발방지를 위해 **수하물처리 전 과정에 대한 운영체계를 개선·보완**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중입니다.

□ 위탁수하물 내 위험물질 검색방식 변경에 따라 초기에는 보안검색

요원, 이용자 모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, 점차 보안검색요원의 업무처리가 능숙해지고 '개봉검색'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

* 위탁수하물에 대한 X-Ray 검색 후 수하물 내 위험물질로 추정되는 물건이 검색되면 해당 수하물 위탁자 동행 하에 개봉 검색 실시
  ↳ (제1 여객터미널) 개봉검색장이 '체크인카운터 옆'에 있어 모든 승객이 X-Ray 검색을 마칠 때까지 약 5분간 대기
  ↳ (제2 여객터미널) 개봉검색장이 '격리대합실 내'에 있어 의심수하물 위탁자(통상 전체 승객의 5% 수준)만 방문하여 수하물 검사 실시

□ 국토부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해 인천공항공사, 취항항공사를 비롯한 모든 상주기관의 **상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여객 안전과 편의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나갈 계획**입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천홍식 사무관(☎ 044-201-43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